

계엄 이후의 문학...남도 시인 탐구

‘문학들’·‘시와 사람’ 여름호 발간
지난해 내란 사태 문학적 비평 등
기획·특집 풍성한 읽을거리 담아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문학들’, ‘시와 사람’ 여름호가 기획, 특집 등 풍성한 읽을거리를 가지고 독자들 곁으로 왔다.
먼저 ‘문학들’ (통권 80호)은 특집으로 ‘계엄 이후의 문학’을 다뤘다.

서동진 계엄예술대 융합예술학과 교수는 ‘정치와 반정치, 비정치: 내란 정국의 정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글에서 “이제 광장의 정치가 비정치와 반정치의 지렛대가 되지 않고 변혁으로서의 정치로 나아가는 좌표의 자리를 재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1987년 체제의 위기가 제압하고자 한 계급적 행위로서의 정치를 뒤살려 내고 정치에 제 몫을 찾아 주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권김현영은 ‘촛불에서 응원봉으로의 상징 전환: 사물, 장소, 주체의 변화’라는 주제의 글에서 “내란의 종식은 예외상태를 종결시키는 압도적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라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상호의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는지를 시작점으로 다시 잡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소들’에는 기억책방의 주인장인 송기억 작가가 ‘금남로, 소년이 오는 거리에서’를 상재했다. 책방을 연 지 3년이 된 송 작가는 문정 시절 만났던 이들과 오래 전부터 책 냄새와 연계돼 살아왔던 시간들과 인연을 떠올린다.

‘뉴광주리뷰’에서는 김주선 평론가 ‘문학들’ 20주년에 대한 작은 회고’를 만난다. 김 평론가는 ‘문학들’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10년도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창간 당시의 다짐인 소문자 문학, 다양성, (탈)지역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이 지난 3월 31일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DB>



성 등을 끝까지 품고 가야 한다고 고언했다.
‘창작’에는 강희정, 고영서, 김이강, 김이수, 문귀숙, 신이인, 양기창, 양안다, 유종, 이장욱, 이지담, 임유영, 최승권 등의 시를 포함해 고은경, 성혜령의 소설이 수록됐다.
시전문지 ‘시와사람’ (통권 116호)은 ‘남도시인 탐구-1’로 송수권의 문학세계를 조명했다. 시인인 이승하 중앙대 교수가 ‘남도 시의 정수 송수권의 문학세계’를 다뤘다. 모두 10회에 걸쳐 연재하는 이 시리즈는 송수권의 시와 문학을 다각도로 조명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교수는 “계보로 본다면 소월과 영랑, 정지용,

서정주, 청록파 3인, 박재삼으로 이어지는 시, 즉 내용으로는 정한의 시요, 형식으로는 가락의 시를 쓰는 시인이 송수권”이라고 평한다.
박태일 시인(경남대 명예교수)가 쓰는 ‘전남·광주 지역문학의 은씨라기 금씨라기-11’은 이번 호에서는 ‘동인지 ‘등화’와 곡성 시인 차의섭의 걸음길’을 주제로 지역 문학을 토했다.
‘해시태그’ 코너에서는 전숙 시인이 김병호 시인을 주목했다. “어린 왕자의 ‘다 써버린 슬픔’에 젖다”를 주제로 ‘어린 왕자’와도 같은 서정을 간직한 시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 시인은 “김병호 시인을 읽으며 나는 햇살밭에 들어선 느낌을 받는 다”며 “김병호 시인의 작품들을 쫓아 나는 유년의 그때처럼 다시 따뜻해진다”고 전했다.
“시와사람” 신작소시집 코너’에서는 박덕은 시인의 ‘고인물’, ‘설거지’, ‘이발’, ‘간고등어’ 등 시와 박철영 평론가의 작품론 ‘이전의 심원한 사유’가 소개돼 있다.
신작시에는 강영은, 고경숙, 김정순, 박준수, 손수진, 이남근, 임인호, 조세핀, 홍영숙 시인 등의 작품이 실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웃음과 눈물의 경계 ‘세 할머니’

㈜스튜디오반 연극 ‘문턱’ 27~28일 광산문화예술회관

삶과 죽음, 웃음과 눈물의 경계에서 세 할머니의 판타지가 펼쳐진다.
㈜스튜디오반이 제작한 연극 ‘문턱’이 27~28일 이틀간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요양병원을 배경으로 세 할머니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은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은 93세 정미소가 치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소하며 시작된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미소는 뜻하지 않게 낯선 공간에 던져진다. 그가 배정받은 병실 302호에는 이미 두 명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오지랴 할때’로 불리는 말녀와, ‘잠자는 공주’ 귀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진 세 노인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점차 정을 나누고, 함께 늙어가며 웃고, 울고, 기억하고, 포기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 작품은 단순한 병상극이 아니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무대 위에는 ‘유령 의사’라는 상징

적 존재도 등장한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뒤섞이면서, 관객은 어느새 생과 사의 경계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세 할머니의 좌충우돌 일상은 한국 사회 고령화의 단면과 함께, 노년의 삶에 깃든 희로애락을 유쾌하면서도 절절하게 보여준다. 특히 연극 중반부 이후 이어지는 술과 음식,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삶의 파티’ 장면에서는 인생이 끝을 향해 흐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위로가 담긴다.
광산구청 문화예술과 신혜영 담당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년의 삶을 유쾌하게 그려낸 이번 작품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1만원(광산구민·경로자 등 50% 할인), 티켓링크 예매. /정혜원 기자 hey1@

청소년들의 ‘연극놀이’

극단 토박이 7월 9일~8월 15일
광주 민들레소극장서 체험 워크숍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연극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극단 토박이는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광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청소년 연극 체험 워크숍 ‘배따이들의 생기발랄 연극놀이’를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연극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선착순 10~15명을 선발한다. 접수는 오는 7월 8일까지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극단 토박이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광주, 이미지와 함께 걷기’

시립미술관 ‘잡질과 디깅’ 오늘 첫 번째 포럼·아카데미

발터 벤야민은 도시의 장소 이미지를 매개로 비평적 방법을 제안했다. 정치적인 관점을 ‘도시 산책’이라는 모티브로 풀어낸 비평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의 대표 이미지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5·18민주광장, 무등산, 옛읍성터 등 다양한 공간들이 환기된다.
벤야민의 이론을 토대로 ‘광주, 이미지와 함께 걷기’를 주제로 한 포럼·아카데미가 열린다.
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7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포럼·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포럼·아카데미는 신진 연구자들의 협업 연구 프로그램인 ‘잡질과 디깅’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된 다.
27일 김서라 비평가의 ‘광주, 이미지와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포럼·아카데미는 도시 속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서라 비평가는 ‘이미지와 함께 걷기-길에서 수집한 광주의 이미지들’을 펴냈으며 ‘근대적 기술관에 대한 발터 벤야민의 비판과 대항전략’ 논문 등을 발표했다.
한편 윤익 시립미술관장은 “김서라 비평가가 바라본 광주 이미지와 그 안에 내재된 다채로운 의미, 상징성 등은 광주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주여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박당 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대연 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석당 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송가네 반찬

광주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림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막일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초대 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울켄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